

# 6 유쾌한 사람들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소식지  
2017 Summer Vol.22



<b>FOCUS</b>	2017 방화나눔축제 '꿈이 있어 행복한 우리 마을'	/ 04
<b>생생정보Talk</b>	장소 찾아 헤매는 건 이제 그만! 모임공간을 대여합니다!	/ 07
<b>유쾌한이야기1</b>	강한 마음을 가진 엄마들의 모임 '강심장 부모모임'	/ 08
<b>유쾌한이야기2</b>	꿈을 싣고 떠나는 '어르신 나들이'	/ 10
<b>유쾌한이야기3</b>	우리끼리 모여 즐길 수 있는 곳! '꿈틀꿈틀 놀이터'	/ 12
<b>방화6NEWS</b>	4월~6월 복지관 주요활동 한 눈에 보기	/ 14
<b>유쾌한이웃1</b>	우리 마을 따뜻한 이웃, 꿈이 있어 행복한 우리들	/ 18
<b>유쾌한이웃2</b>	우리 마을 선한 이웃, 방화3동 재향군인회	/ 20
<b>참, 고맙습니다</b>	따뜻한 이웃, 선한 이웃 소개	/ 22

## “여러분들이 꿈꾸는 우리 마을은 어떤 모습인가요?”

“서로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  
지금도 너무 좋아. 깨끗하고, 공기도 좋고, 나에겐 언제나 고마운 마을이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를 생각하고, 챙겨주고, 나누는 따뜻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  
-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김순옥

“야구 시설이 생기면 신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하려면 친구들이랑 멀리까지 가야해요. 우리 동네에도 야구 시설이  
있으면, 친구들이랑 수업 마치고 신나게 놀 수 있을텐데 그게 아쉬워요.  
운동하기 좋은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꿈틀꿈틀 놀이터 이용 아동 우인성

“소외된 사람이 없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네에 살면서 이웃 간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데, 먼저 인사하고, 관심을 가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도우며  
살아가면 소외된 이들이 없는 마을이 될 것 같아요.”  
- 강심장 부모모임 참여 주민 김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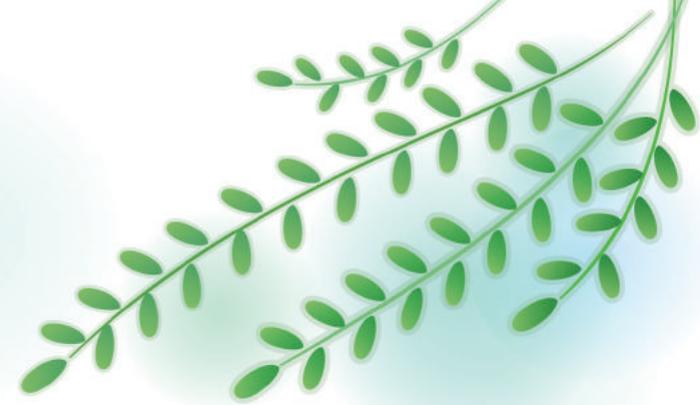


표지해설  
Vol.22 표지모델 **방화동 마을 주민** (왼쪽부터 김순옥, 우인성, 김윤아)



“제가 꿈꾸는 우리 마을은 000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꿈을 지원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방화나눔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지역 어르신이 건강한 웃음을 짓고,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펼치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바랍니다.

# 6유쾌한 사람들



## 꿈꾸는 우리 마을

여름이한 단어가 조금씩 익숙해지는 시기입니다.  
더워지는 날에만큼 평소 수월했던 일들도 조금 힘들고  
체력적으로 지치는 날들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 진행된 방화나눔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꿈을 꾸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꿈, 청소년들의 꿈, 어르신들의 꿈, 이웃의 꿈까지  
이번 스물두 번째 ‘유쾌한 사람들’은 방화동 주민들의 꿈을 담아냈습니다.

꿈꾸는 주민들이 있기에 마을이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꿈꾸는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 Contents

<b>FOCUS</b>	2017 방화나눔축제 ‘꿈이 있어 행복한 우리 마을’	/ 04
<b>생생정보Talk</b>	장소 찾아 헤매는 건 이제 그만! 모임공간을 대여합니다!	/ 07
<b>유쾌한이야기1</b>	강한 마음을 가진 엄마들의 모임 ‘강심장 부모모임’	/ 08
<b>유쾌한이야기2</b>	꿈을 싣고 떠나는 ‘어르신 나들이’	/ 10
<b>유쾌한이야기3</b>	우리끼리 모여 즐길 수 있는 곳! ‘꿈틀꿈틀 놀이터’	/ 12
<b>방화6NEWS</b>	4월~6월 복지관 주요활동 한 눈에 보기	/ 14
<b>유쾌한이웃1</b>	우리 마을 따뜻한 이웃, 꿈이 있어 행복한 우리들	/ 18
<b>유쾌한이웃2</b>	우리 마을 선한 이웃, 방화3동 재향군인회	/ 20
<b>참, 고맙습니다</b>	따뜻한 이웃, 선한 이웃 소개	/ 22

발행인 김성미 | 편집인 남정교 서예지 양종철 이미진 | 발행처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전화 02-2666-6181~3 | 팩스 02-2666-6184 | 홈페이지 www.banghwa6.or.kr  
주소 서울시 강서구 금녕화로 23길 25(방화동, 방화6단지아파트) | 디자인/인쇄 리치에드

# 2017방화나눔축제 꿈이 있어 행복한 우리마을

오늘도 꿈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푸른 잎이 마을을 수놓던 5월 26일(금) ~ 27일(토), 총 2일간

2017방화나눔축제 '꿈이 있어 행복한 우리마을'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7번째 진행한 이번 방화나눔축제에서는 지역주민 약 3,000명과 자원봉사자 177명이 함께하여 그 의미를 더해 지역주민들의 각기 다른 꿈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 길놀이를 통해 2017방화나눔축제 '꿈이 있어 행복한 우리마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 떡볶이, 순대, 핫도그, 파전 등 지역주민들의 꿈을 담은 다양한 음식으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 의류, 신발, 식료품,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판매되었습니다.



▲ 수세미 뜨기, 마술체험, 종이접기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꿈꾸는 총 17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다양한 꿈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많으신 독거 어르신, 경제적인 형편으로 학업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희귀 질환으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가 필요한 주민 등 각기 다른 꿈을 꾸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민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방화나눔축제는 '꿈이 있어 행복한 우리 마을'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방화나눔축제를 통해 모금 된 기금은 마을의 꿈 지원활동에 활용합니다.



## 김영자(가명) 어르신의 꿈은 함께 걷는 벚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 좋은 5월, 홀로 생활하시는 김영자 어르신은 '가족의 달'인 5월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매일 혼자 집에서 TV만 보고 있어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할 상대가 없으니 외롭죠. 잠시라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영자 어르신의 꿈은 손수 만든 반찬거리도 함께 나누고, 같이 길을 거닐며 이야기 하는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김영자 어르신과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방화나눔축제에 함께 하였습니다.

최근 김영자 어르신은 복지관에 나오셔서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건강관리실에서 이야기 꽃도 피우시고, 어르신 주민모임에도 참여하여 여러 이웃들과 어울리고 계십니다. 김영자 어르신에게 외로움이 아닌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감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 고등학생 서연(가명)이의 꿈은 정의로운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서연이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는 경찰이 되어 저보다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연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태권도 학원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연이의 모습을 보며 서연이의 어머니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딸의 꿈을 제대로 뒷받침 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학원비가 부담인 서연이 가정에게 매달 지원되는 장학금은 학원을 다니고, 공부할 수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한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됩니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서연이의 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김미영(가명)님의 꿈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는 것입니다.**

김미영님은 아픈 가족들을 간호하다가 최근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과 미소를 잃지 않는 김미영님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하루 빨리 제가 나아져서 아픈 가족들의 치료비도 마련하고,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어요.”

김미영님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남편과 함께 매일 따뜻하지만 소박한 저녁을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김미영님의 소박한 행복을 위해 의료비 지원과 결연 후원금 전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는 김미영님이 작지만 행복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모아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 | 이동준 사회복지사

**나눔!**

이렇게 실천하세요.

-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 둘째, 나눔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조사하거나 공부해보세요.
- 셋째, 작은 것, 쉬운 것부터 나눔을 실천하세요!
- 넷째, 작은 것이라도 아끼고 재활용 하는 것도 나눔입니다.
- 다섯째,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 여섯째,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 고민해보세요.
- 일곱째, 오늘 할 수 있는 나눔은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 여덟째,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아홉째, 가족,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 열째,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눔의 홍보대사가 되어보세요.

- 출처 : 아름다운재단 -



**생생 정보 Talk!**

**장소를 찾아 헤메는 건 이제 그만! 모임공간을 대여합니다!**



» 학부모 모임, 반상회 등 각종 모임과 회의는 **북카페 세미나실에서!**

**문원정(세미나룸 이용주인)**

동네에 스터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아요! 북카페 세미나룸을 이용하면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요. 스터디 모임이나 회의할 때 이용하기에 딱이에요!



» 취미소모임, 공부모임 등 정기적인 모임은 **주민사랑방 다소니에서!**



**박정식(퀵모임)**

다소니는 다정한 이웃들이 모여 소소한 일상을 여여가는 사랑방입니다. 서로 재능을 나누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다소니'의 의미를 되새겨주듯 편안한 곳입니다!



» 어린이와 함께 할 공간이 필요할 땐 **꿈틀꿈틀놀이터에서!**



**김지후(삼정초등학교 4학년)**

꿈틀꿈틀 놀이터예요~! 책도 읽을 수 있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 수 있는 곳이에요! 심심하면 올라가서 놀 수 있어서 좋아요.



» 방화동 청소년 모임 어디갈까 방향하지 말고 **청소년 문화공간 움트다에서!**



**이수민(삼정중학교 1학년)** : 청소년들만의 공간이 생겨서 좋고,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여기 놀러와서 보드게임도 하고 간식도 나눠먹는답니다.



**우리마을 커뮤니티 이용안내**

커뮤니티	위치	운영시간	대상	내용
SH여행 북카페	방화6단지 상가 1층 102호	월~금/09:30~18:00	주민 누구나	커피 및 음료, 주민 소통 공간 이용, 도서 대여, 세미나룸 대여
주민사랑방 다소니	방화6단지 상가 2층 205호	월~금/09:00~20:00 토/09:00~13:00	주민 누구나	공간 대여(3인 이상 주민모임)
꿈틀꿈틀 놀이터	복지관 3층	월~금/13:00~19:00	아동, 학부모	어린이 도서, 장난감 대여 및 놀이 공간 대여
움트다	복지관 지하	월~금 09:00~20:00/ 토 09:00~13:00	청소년	공간대여(일 최대 2시간 이용) 및 영화, 컴퓨터 등 이용

## 강한 마음을 가진 엄마들의 모임

# 강심장 부모모임

매월 2번씩, 우리가 함께 만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아이(I)마음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자녀들의 엄마들이 함께 모여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I)마음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과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함께 모였고,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서로의 재능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힐링이 되요.”

“사실 상담센터를 다니면서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서로를 챙기는 모임이 될지는 몰랐어요. 같이 체험활동도 하게 되고.”

“집에만 있다가 모임에 나오는 내 모습을 보니 모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모임을 통해 매번 자녀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지만, 본인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 지역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차별없이, 어우러져 지내고 싶어요

“방화동에는 은근히 소외계층들이 많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차별을 많이 받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남들과 조금 다른 것이지, 손가락질 받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모두가 같이 어우러져 지냈으면 좋겠어요. 차별 없이, 똑같이.”



### ● 햇빛 안에서 다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역사회의 모습입니다.

자녀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엄마들도 자녀와는 또 다른 아픔을 마을에서 느낀다고 합니다.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수군거림을 듣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마음을 가진 엄마들은 복지관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의 식사배달을 하기도 하고, 마을 축제에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몸짓이라도 서로를 위로하고, 마을을 위해 먼저 솔선수범하는 활동을 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우리 마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들도, 다문화 가정, 어르신들, 아이들도 모두가 함께 허물없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들과 똑같아졌으면 한다는 작은 바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의 바람처럼 우리 마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시선에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해봅니다.

글 | 정효숙 사회복지사

# 꿈을 싣고 떠나는 '어르신 나들이'

나들이에 처음 참여한 어르신의 꿈,  
오랜만에 바다를 보고 싶다는 어르신의 꿈  
그 많은 꿈들과 함께 떠나 더욱 즐거웠던 어르신 나들이!  
웃음과 이야기가 많았던  
속초 나들이 에피소드를 한 번 들어보실래요?



## 모두의 꿈을 안고 떠난 나들이

아직은 차가운 공기로 쌀쌀하던 3월, 어르신들이 평소 작은 꿈이었던 나들이에 가고자 복지관에 방문합니다.  
“나는 나들이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올해는 꼭 가는 게 꿈이야.”  
“더 나이 들거나 아프면 못 갈 것 같아서 이번에는 꼭 가고 싶어.”  
‘나들이’란 ‘집을 떠나 가까운 곳에 잠시 다녀오는 일’이라는 사전적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에게 ‘나들이’란 단순히 사전적 표현 이상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 설렘 가득 담긴 속초 여행길

따뜻한 봄 4월. 멋진 선글라스와 예쁜 봄 점퍼, 한 가득의 짐 안에는 어르신들의 설렘도 한 가득입니다. 이른 아침, 곱게 화장하신 여자 어르신들과 한껏 머리를 빗어 넘기신 남자 어르신들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자네도 가는가? 매일 얼굴은 본 사이지만 이렇게 같이 나들이도 간다고 하니 새롭구만.”  
“여기 자리 있는교?”  
때론 멋쩍게, 때론 반갑게 인사를 하며 함께 떠날 여행에 대한 기대를 가득 담아 버스가 출발합니다.

## 바다를 바라보며 추억에 잠기다

나들이 장소인 속초에 다다르니 장시간 여행에 피곤하여 주무시던 어르신들도 일어나서서 한바탕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여기가 미시령 고개야. 구불구불 하지? 예전에는 길도 없어서 얼마나 험했다고, 여기를 40년 만에 와보고 이제 야 왔네, 참 오랜만에 왔어.”  
“저기 바다 한 번 보봐. 진짜 질푸르네. 우리가 언제 또 속초에 와서 동해 바다를 와보겠어.”  
어느 한 어르신은 나들이를 통해 오랜만에 방문한 속초에서 벽참과 회화에 잠기기도 하시고, 나들이에 처음 참여하신 어르신은 멀리 바다를 보며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추억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하룻밤을 보냅니다.

## 그림같은 풍경 속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어느 멋진 날

나들이 둘째 날, 겨우 내 내렸던 눈이 아직 다 녹지 않은 설악산 아래의 찻집 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마시는 차 한 잔은 나들이에 피곤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좋다~! 집에 가기 싫네.”  
“이런 멋진 곳에서 차 한 잔 마실 줄 몰랐는데 꼭 꿈만 같네.”

차 한 잔의 여유가 어색하신지 아무런 말 없이 연신 차만 마시는 어르신을 보며 꿈꾸는 여유조차 없이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아름다운 꿈과 추억을 가득 안은 '어르신 나들이'

질푸른 동해 바다를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아쉬우신지 여러 배경을 두고 서로 사진을 찍습니다.

“선생님요~ 나 이거 문자 하나만 보내줘. 딸한테 사진 한 장 보내줄라고.”  
“당신(여보), 이리 와봐요. 같이 여기서 찍읍시다.”

행복한 추억거리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는 어르신들도 계셨고, 평소에는 묵묵하기만 한 남성 어르신이 아내를 부르며 멋쩍고 수줍은 모습으로 사진도 찍습니다. 이번 나들이를 통해 한 편의 아름다운 추억과 꿈을 선물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 나들이는 어떠셨어요?

**김순옥 어르신**은 나들이에 참여한 어르신입니다. 이사 오신지 몇 년 되었어도 친한 이웃이 많이 없어 적적하던 때, 나들이를 통해 어르신은 ‘동네 친구를 더 많이 사귀어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김순옥 어르신의 생생한 소감을 들어보실까요?

1박 2일 동안 꿈꾸는 것처럼 너무 좋았지,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같이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한 방에서 같이 자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정말 즐거웠어.

### 나들이를 통해 무엇이 달라지셨나요?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웃들하고도 많이 친하지 않았었는데 나들이 다녀와서는 서로의 안부도 묻고, 많이 친해졌어. 경로식당에 오면 같이 나들이 갔던 이웃들이랑 그 때의 이야기도 나누면서 웃기도 해. 그리고 나도 며칠 동안은 상쾌한 기분이 들더라고, 그 때 생각에 활기도 되찾았고, 이래저래 많이 달라졌지.

### 어르신이 꿈꾸는 우리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도 너무 좋지. 깨끗하고, 공기도 좋고, 나에겐 언제나 고마운 마을이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를 생각하고, 챙겨주고, 나누는 따뜻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

어르신이 꿈꾸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김순옥 어르신은 근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거동이 불편하신 다른 어르신을 위해 식사배달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나들이에 처음 참여하신 어르신의 꿈, 오랜만에 바다를 보고 싶다는 어르신의 꿈처럼 어르신들의 많은 꿈을 싣고 떠난 '어르신 나들이' 이야기 잘 보셨나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꿈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글 | 서예지 사회복지사



우리끼리 모여 즐길 수 있는 곳!  
**꿈틀꿈틀 놀이터**

3층에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공간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거기는 애들만 노는 놀이터예요. 거기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 재밌어요.”

“꿈틀꿈틀 놀이터가 있어서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옷놀이도 하고 수박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거기 가면 친구들이 있어서 좋아요. 심심할 때 올라가요.”

아이들이 모여 놀이터에서 무엇을 해봤는지 서로 자랑하기 바쁩니다.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꿈틀꿈틀 놀이터. 꿈틀꿈틀 놀이터에서는 전통놀이대회, 텃밭 가꾸기 활동 등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았고, 개화산 물총 서바이벌, 장난감 돛자리 장터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지냈습니다.

꿈틀꿈틀 놀이터는 아이들만의 공간입니다.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꿈틀꿈틀 놀이터로 놀러오세요~!



글 | 박혜정 사회복지사

꿈틀꿈틀 놀이터를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마을은요~?



사람들 모두 다같이  
놀 수 있는 동네였으면  
좋겠어요!  
- 양민혁 아동 -

친구들이 많은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박승우 아동 -

지금의 동네가 좋아요.  
우리 동네는 범죄도 없잖아요.  
지금은 꿈이 없는데 꿈이 많 생겨나는  
동네였으면 좋겠어요.  
- 강민재 아동 -

착한 사람이 많은  
동네였으면 좋겠어요.  
- 정승빈 아동 -

놀이터에 담배 피우는  
아저씨들이 너무 많아요. 아저씨들이  
금연구역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 우인성 아동 -

나무가 더 많고  
자연이 더 많은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최지윤 아동 -

사람들이 동물들과  
친하게 지내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김지후 아동 -

2017년 4월~6월 복지관 주요 활동 한눈에 보기

## 아동&청소년 BANGHWA6 NEWS



### 독특 문화플래너 오리엔테이션

4월 14일(금), '독특 문화플래너'에서는 1기 문화기획단 청소년들과 2기 문화기획단 청소년들이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프로그램의 소개와 일정, 활동 규칙을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과 다양한 게임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함께 게임을 즐기며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 어깨동무 협동심 향상 프로그램

4~6월에는 어깨동무 활동이 매일 진행되었습니다. 4월에는 서로가 없으면 완성할 수 없는 '실루엣 모자이크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고 5~6월에는 함께하는 '도미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작품을 완성하는 데에서는 성취감을, 놀이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움을, 친구들과 함께하며 배려와 협동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암웨이ABO희망비타민 자원봉사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 교육문화사업 스승의날/어린이날

5월 어린이날과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5월 4일(목) 예쁜 경단 만들기, 나노 블록 만들기, 특별한 종이접기 수업 등 특별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 15일(월)~16일(화)에는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선생님께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와 카네이션,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동기유발 프로젝트 리더십 교육

6월 5일(월)~6일(화), 동기유발 프로젝트 참여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나의 마음을 열어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고, 둘째 날에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 나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진로를 계획해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 발표를 하는 자신감, 소통능력 등을 얻었다고 참여한 친구들이 직접 이야기해주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월까지 계속되는 우리 친구들의 진로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 독특 문화플래너 학부모 설명회

6월 7일(수), 총 9명의 문화기획단 청소년의 부모님이 참여한 '독특 문화플래너' 학부모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독특 문화플래너'의 담당자 인사 및 사업소개, 사업일정 안내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며,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 독특 문화플래너 문화워크숍

6월 10일(토)~11일(일), '독특 문화플래너'에 참여하는 문화기획단 청소년 23명과 함께 문화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날에는 성북구에 위치한 '청소년 숲'으로 문화탐방을 통해 다른 지역 청소년 문화를 경험하고, 워크숍을 통해 문화축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날에는 파주 '헤이리마을'에서는 조별미션활동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문화축제 기획, 진행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 아이들 123 프로젝트 방가방가 건강 올림픽

6월 17일(토), 한국암웨이 건강지킴이사업에 참여하는 방화동의 가족 45명(방화6.11복지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화동에 위치한 개화산을 등반하며 가족이 함께 운동생활을 실천했고 미니올림픽에 참여하며 다른 가족과도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물은 건네며 방화동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고 즐거워지는 일석이조의 활동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진행될 방화동 가족들의 건강한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한국암웨이건강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 인문학모임 문화체험

6월 17일(토), 인문학 모임에 참여하는 꿈지센터 장학생들과 호박상자 봉사자들이 지난 주말 롯데월드에서 다녀왔습니다. 무더운 더위도 날려버릴만큼 즐거운 웃음을 띄며,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간식도 먹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했던 시간이 전에 없어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신나는 놀이기구를 타다니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장학생들의 문화체험에 대한 욕구 해소를 위해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롯데월드에 감사드립니다.

## 어르신 BANGHWA6 NEWS



### 귀뚜라미 복지재단 '해피투게더' 결연자원봉사

매월 둘째 주 토요일, 귀뚜라미복지재단 직원들과 지역 내 어르신들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4월 8일(토)은 봉사자들과 귀뚜라미 복지재단 직원들이 함께 만나 담소와 식사를 함께 하였고, 산책을 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13일(토)은 어르신들과 함께 일산 아쿠아리움을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물고기와 동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 어르신어울한마당 '유쾌한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월),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초복 맞이 어르신 어울 한마당 '유쾌한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강당에서 진행된 1부 행사는 워자지컬 레크레이션 활동과 직원들의 감사 공연이 있었으며 이어서 진행된 2부 행사에는 한방설령탕, 잡채, 모듬전, 과일 구경한 특식지원과 감사 선물을 전달해 드렸고, 3부에서는 이웃 주민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이웃에 가가호호 방문하여 케어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유쾌한 어버이날' 행사를 통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할 수 있었습니다.



###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노노케어' 문화체험

5월 11일(목),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노케어 활동가 10명을 대상으로 서울스카이 전망대 관람과 석촌호수 둘레길 탐방 등 문화체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활동에 대한 지지와 활동가 간의 친밀감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강서구청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 행복한노우 서예체험

5월 18일(목), 서예교실을 진행하기 전 일일서예체험을 통해 서예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보고자 염창역에 위치한 석정서예교실에 방문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서예는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문방사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글씨를 써보면서 서로 담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로간의 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어르신은 선생님께서 준비한 깜짝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서예교실이 기대됩니다!



### 행복한노우 요리교실 및 레시피 연구회

5월 24일(수), 행복한노우 요리교실에서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고, 소고기 버섯죽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에 좋은 소고기 버섯죽을 만들고 난 뒤 서로 맛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5월 31일(수)에는 올해 처음으로 요리교실에서 사용한 레시피를 토대로 저염·저당·저칼로리 식단을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레시피 연구회를 시작했습니다. 올 연말 레시피북 출간을 위해 노력하는 어르신들의 모습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미생 '또 하나의 가족' 음식판매

5월 26일(금), '또 하나의 가족' 자조모임 참여 어르신들은 함께 여행을 가 기위한 기금마련활동으로 '방화나눔축제'에 부스로 참여하여 식혜와 어묵 을 판매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전날부터 어르신들이 직접 열심히 만든 식혜와 어묵으로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도 매우 만족해 하였으며, 모두 판 매완료할 정도로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올 연말에는 음식판매활동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어르신들이 함께 가고싶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음식판매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역주민 BANGHWA6 NEWS



### 누구나 강좌 오리엔테이션

4월 20일(목), 누구나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주민강 사와 주민들이 한데 모여 누구나 강좌에 대해 이해하고 주민강사 들과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누구나 강좌 진행 에 있어 서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6월까지 압화, 도예, 종이접기, 수채화, 리딩큐어(어머니 상 담), 손뜨개, 민화, 태팅(서양매듭), 반찬 만들기, 양말인형 만들기 등 누구나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서로 이웃을 만들 고 이야기 꽃을 피우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만나기 외부부스

4월 26일(수), 지역주민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주민만나기 외부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주민만나기 외부부스는 방화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되었으며 함께하고 싶은 우리 마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매월 4주 수요일 지역 주민분들의 목 소리를 듣기위해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합니다. 꿈이 있어 행복한 우리 마을입니다.



### SH 여행 북카페 '수다번개'

4월 27일(목), SH 여행 북카페에서 수다번개가 진행되었습니다. 한현 경 주민의 재능기부로 천연비누만들기제작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 들이 모여 '나를 도와준 이웃'이라는 주제로 수다를 떨며 이웃에게 나 눘를 실천할 방법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월 주민들이 모 여 이웃과 즐거운 마을살이를 이야기하는 수다 모임에 많은 기대와 관 심 부탁드립니다.



### 하나두리이음 기관방문

4월 27일(목), 마포에 위치한 성미산 마을에 기관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올해에는 같이 협동하여 물건을 판매해 보고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잘 운영하고 있는 비 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관방문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자들과 실천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 지방보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 맘자람프로젝트 부모교육&워크숍

5월 12일(금)과 5월 19일(금), 2회에 걸쳐 양육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의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다 더 올바르게 자녀를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 는지에 대한 교육을 들 수 있었습니다. 형제간의 갈등이 있을 시, 개입하는 방법과 부모님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녀의 기질에 맞는 교육 방법을 습득하고 실천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연간으로 교육 주제를 설정하는 워크샵도 진행 하였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주제를 결정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자산화성지원사업 여성마라톤 참가

5월 13일(토), 자산화성지원사업 참가자 및 가족과 함께 여성신 문사에서 주최한 '여성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마라톤에 참여하여 향긋한 꽃향기도 맡고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완주 메달을 통해 성취감 까지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참가자 및 가 족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화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 하나두리이음 음식판매

5월 26일(금), 방화나눔축제 시에 하나두리-이음에서는 직접 만든 족발 을 판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날부터 폭 고아 삶은 족발을 지역주민 들에게 팔아보고 참여자들 또한 판매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 었습니다. 비록 많은 수익금은 내지 못하였으나 직접 만든 음식을 판매해 보고 맛있게 드시는 주민들을 보며 뿌듯한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 SH 여행 북카페 우리동네음악회 '생생콘서트'

6월 10일(토), 복지관 앞마당에서 우리동네음악회 '생생콘서트'를 진행하 였습니다. 2015년부터 관계를 맺어온 강서필청소년오케스트라와 새롭게 함께 하게 된 계산색소폰, 한국공항공사 연합 합창단의 재능공유로 주민 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역주민의 공 연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음악을 즐길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자산화성지원사업 주거교육

6월 16일(금), 자산화성지원사업 주거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본 교육은 등촌7종합사회복지관과 연합하여 진행했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참가 자들은 임대주택에 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화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 다독다독 청년모임

6월 27일(화), 6월 29일(목) 두 번에 걸쳐 다독다독 프로그램 사전모임 을 진행했습니다. 총 4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에니어그램 검사 및 저녁식사를 진행했습니다. 에니어그램을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도 알 고, 참가자들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며 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화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 직원 BANGHWA6 NEWS



### 상반기 전체직원 연수

4월 7일(금)~8일(토), 1박 2일 동안 경기도 양평, 강원도 춘천 인근으 로 2017년 상반기 전체직원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즐거움 - 오락(5樂)」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수를 통 해 공동체 역량강화와 앞으로 진행할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 는 시간이었습니다.



### 제7회 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 최우수(A등급)기관 선정

4월 26일(수), 5,856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장기요양센터'가 최 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적절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 및 위생관리를 위한 이동목욕, 방문목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용하는 지역주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더욱 질 높은 목욕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회장상 및 Best Practice 수상

5월 11일(목),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 주최한 '제3회 사회복지관의 날' 기념행사에서 본 복지관에서 약 8년간 열정적인 근무로 복지증진 에 기여한 '최민정 팀장'이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회장상 표창장'을 수상 하였습니다. 또한 '심혜수 대리'가 진행하는 '미생(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사업이 'Best Practice' 선정되어 실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마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 은 관심과 응원해주세요!

# 우리들의 이야기 '꿈이 있어 행복한 우리들!'

여러분들은 '나눔'을 떠올린다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혹시 '경제적인 기부', '물품 지원', '여유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여기, 나눔이란 '함께 나누는 즐거움', '소통의 기회이자 통로', '작은 것부터 나누려는 마음'이라고 하는 따뜻한 주민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한 나눔을 통해 방화나눔축제에 참여한 주민모임을 만나볼까요?

※인터뷰에는 '손뜨개 모임', '미생 어르신 모임', '북한이탈주민모임 하나둘리 이음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이 함께 하셨습니다.



## Q1. 방화나눔축제 나눔활동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손뜨개 모임

"누군가에게 나누었다는 기쁨보다는 우리끼리 함께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좋았습니다."

"마을에 이렇게 많은 모임들이 활동 하고 있는 것에 놀랐고,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열정에 또 놀랐습니다."

미생 모임

"기분이 좋죠. 노인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언제 또 이렇게 웃고 즐길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특히 우리 모임이 방화나눔축제에 단순히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뿌듯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나둘리 이음 모임

"남과 북의 주민들이 서로 구분 짓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뿌듯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바쁜 시간을 내고, 이렇게 소중한 이웃들과 소통하며 작은 힘이라도 함께 도울 수 있으니 마치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시다."



## Q2. 나눔이란 무엇일까요?

손뜨개 모임

"나눔이란 것이 별게 있나요. 무언가 계획하고 나누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나눔의 시작 아닐까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물질적 나눔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질적 나눔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지식을 나누고 이렇게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이 아닐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부터 나눌 수 있는 것이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생 모임

"나눔은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은 것부터 나누는 것이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으로서 저의 행복도 높아집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나눔을 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나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둘리 이음 모임

"나눔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기회이고 통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작은 힘이라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나눔입니다."



## Q3. 우리 모임의 꿈(목표)는 무엇인가요?

손뜨개 모임

"저희의 목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뜨개질을 즐기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더 즐거운 법이니까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재능을 나누고 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임이 바라는 꿈입니다."

미생 모임

"우리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우리의 꿈이라고 말씀하시면 그저 건강하게 살고 서로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서로가 건강하고 함께 거닐며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인생을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누구 하나 빠지는 사람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모임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임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하나둘리 이음 모임

"우리는 북한에서 내려와 남한사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모임을 통해서 남한 사회를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꿈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서로 교류하며 남한 사회에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구하고 지역주민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목표이자 꿈입니다. 비록 서로의 꿈은 다를지는 몰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서로의 꿈을 지지하는 마을과 이웃이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정리 | 양종철 사회복지사

## 우리 마을 선한 이웃 방화3동 재향군인회



나눔을 통해 든든하게 방화동을 지키는 방화3동 재향군인회 장남희 여성회장과 황의추 남성회장을 만났습니다.

### Q 방화3동 재향군인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모여 회원 상호 간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모인 단체입니다. 방화3동 재향군인회는 남성회원 20명, 여성회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성회원들은 대다수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대부분의 자원봉사활동은 여성회원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Q 방화6종합사회복지관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복지관과의 인연을 맺기 전에는 단순히 봉사는 하고 싶은데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회장이신 황의추 회장님의 소개로 복지관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후 명절이나 방화나눔축제와 같은 행사에 후원이나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람되지만 일방적인 도움이 아닌 서로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복지관 봉사를 통해 다양한 지역 단체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방화3동 재향군인회라는 단체도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Q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희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한 지도 3년이나 흘렀네요. 주로 명절에 홀로 계신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명절선물도 드리고, 안부 인사를 전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 한 어르신이 떠오르네요. 어르신들이 기뻐하실 때 그 때가 가장 기쁨과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 Q 우리 마을에서 어떠한 꿈이 이루어지길 희망하시나요?

우리 마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문화가 형성되어 이웃들이 행복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도나도 나눔을 실천한다면 꿈이 있어 행복한 마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 마을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꿈이 있는 마을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내 이웃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그 꿈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 이동준 사회복지사

###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는 5가지 방법!

- 하나! 매월 CMS 정기 후원(자동이체)
- 둘! 농협 하나로마트(방화점) 포인트 후원  
방화6복지관(적립번호: 6181) 포인트 적립
- 셋! 온라인 후원  
네이버 해피빈 기부-'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검색  
<http://happylog.naver.com/sjci123.do>
- 넷! 물품(생활용품, 도서 등) 후원
- 다섯!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업체 후원  
상점, 업체가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 후원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8-335770 (예금주: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 후원 내역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 문의 : 지역사회조직팀 후원담당자 ☎ 02-2666-6181~3

당신의 서명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2017. . . .

후원 신청자 \_\_\_\_\_ (서명)  
연락처 \_\_\_\_\_



후원을 희망하는 분은 신청서를 결취하여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달해주시거나 ☎ 02)2666-6181~3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맙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희망이 모여 따스한 빛을 만들어갑니다.

## 2017년 4월~6월 방화6의 따뜻한 이웃



## 2017년 4월~6월 방화6의 선한 이웃

### 자원봉사자

- 가정도우미파견서비스** 곽종열, 김선호, 송호성, 안중수, 우성준, 이남일, 이만수, 이수빈, 임점수, 정광열
- 건강관리실** 김병욱, 안순자
- 공들공들놀이터** 강수민, 강은비, 김관우, 김나현, 김병수, 김윤석, 김지영, 명은영, 민다희, 박건영, 박화경, 배영훈, 유준희, 윤성문, 이선재, 이진관, 이현희, 임창진, 진성범
- 누구나강좌** 김수경, 김순희, 김진희, 노미순, 안혜경, 이윤경, 이혜령, 조숙희, 한현경
- 동기유발 프로젝트** 강희원, 김민지, 김조은, 김태준, 김하은, 김혜인, 유연미, 이예림, 이은서, 이현진, 임은정, 장유정, 최민영
- 무료급식** 강대분, 강양순, 김기학, 김미경, 김민경, 김민서, 김선용, 김성연, 김승민, 김신자, 김연, 김영자, 김윤곤, 김은주, 김재숙, 김재하, 김지우, 김진수, 김준향, 김태석, 김현주, 김혜지, 남정희, 남혜진, 노서운, 명은영, 문동진, 민종미, 박은정, 성가영, 손일순, 송성희, 신옥자, 신지영, 아미라, 안영자, 안현지, 양명선, 유원우, 유은영, 윤병권, 윤세아, 윤소희, 이강례, 이강분, 이근희, 이광재, 이상희, 이순희, 이승연, 이재지, 이에나, 이은서, 이정자, 이정희, 이종현, 이태수, 임은경, 장근희, 장형숙, 장형주, 전운진, 전은정, 전해진, 정귀자, 정도영, 정순옥, 정종미, 조귀녀, 조승우, 조아진, 조정임, 주옥, 진금희, 최경순, 최성운, 최숙자, 최승희, 최영자, 최윤선, 최홍식, 추은자, 하순희, 하애경, 하정석, 한재서, 한태윤, 허윤정, 허은숙, 홍인숙, 홍지호, 홍창우, 황규태, 황남이, 황남희, 황운서, 황인성
- 어르신정서지원** 고광선, 김건영, 김경래, 김경호, 김동연, 김은주, 남경재, 라하니, 박근호, 박선정, 박성빈, 박성은, 오주영, 울자나, 윤경석, 이재현, 장지은, 조경희, 지호진, 최상윤, 최은주
- 영양식** 박영화, 영신교회, 큰나무교회
- 이동목욕** 김경래, 김순례, 김영이, 박병욱, 박은숙, 백종희, 백현수, 서영순, 석운기, 송경복, 신승희, 이미연, 이윤희, 조형순, 최동진, 최영애, 최정임, 하은주, 황보영희
- 이미용** 강숙자, 고영옥, 권영순, 김해옥, 박경심, 신명희, 유영열, 이귀영, 이지은, 정명숙, 최광남, 허문순
- 인문학모임** 김효은, 신지인, 이지혜, 최성원
- 학습지원** 김소희, 이철행
- 어깨동무 프로그램** 강인애, 노시환, 노진선, 박미향, 박윤희, 송미숙, 황옥화
- 업무지원** 권나영, 김성경, 김수연, 김승진, 김진호, 노여송, 명은영, 문지원, 박지호, 서가은, 서예지, 손혜진, 송명근, 이근율, 유연미, 윤봉수, 이종환, 임은경, 임은정, 장민서, 정다운, 정윤경, 조현지, 지민영, 최유진, 황운서, 황준수
- 아이-덤 123 프로젝트** 김경민, 김남준, 김소정, 김혜정, 박소이, 박현지, 심수미, 양지안, 이수민, 이하은, 임현수, 조제윤, 최연수, 최현정
- 방화나눔축제** Cheriendva Ulzana, Nhuyen Thuy Tien, Nishanova Tazhi, 강기림, 강대분, 강명희, 강윤식, 강인순, 강정섭, 강창성, 강혜린, 고광선, 고민석, 공나경, 공명연, 구민자, 구정환, 김건열, 김경래, 김경민, 김국희, 김기욱, 김기학, 김다빈, 김동진, 김문성, 김미경, 김민규, 김민서, 김민성, 김민수, 김상호, 김성규, 김성욱, 김성희, 김소경, 김수연, 김순희, 김영민, 김인순, 김재숙, 김지애, 김지혜, 김재은, 김태은, 김화해, 김호연, 김희진, 남기성, 남유나, 노미순, 노여송, 라연지, 명은영, 문유중, 문재우, 문정현, 문지원, 박근호, 박상원, 박성빈, 박성은, 박소이, 박수연, 박영호, 박정희, 박진하, 박현주, 박희원, 방민희, 배석영, 배수영, 백승민, 백승철, 손미경, 손일순, 손정연, 손호진, 손혜진, 송누리, 송영철, 신윤섭, 신형철, 심은하, 안영환, 안유정, 안중수, 양연희, 엄경민, 엄명희, 엄재빈, 오제록, 원혜진, 유민주, 윤수민, 윤승일, 윤재혁, 윤정, 윤현철, 은현수, 이경은, 이다은, 이도현, 이민서, 이민제, 이병준, 이상민, 이상현, 이선재, 이선호, 이성진, 이성치, 이수길, 이수민(1), 이수민(2), 이수민(3), 이수빈, 이예원, 이유리, 이재홍, 이종태, 이준호, 이진경, 이진관, 이하영, 이하은, 이현영, 이현우, 이현진, 이혜경, 인정은, 임민음, 임선향, 임소민, 임점수, 임창준, 임창진, 장남희, 장민서, 장재용, 장경옥, 장준용, 장현숙, 장혜림, 전병연, 전효정, 정경옥, 정광열, 정나경, 정노적, 정서영, 정수연, 정순옥, 정종미, 정준하, 정지원, 정지호, 정현우, 정희진, 조경희, 조민용, 조영순, 조수연, 조예원, 조제윤, 조현준, 조효섭, 주수연, 지명숙, 진금희, 차수민, 차숙인, 채재령, 최병훈, 최성운, 최영로, 최옥미, 최원우, 최유진, 최재명, 최현숙, 최현희, 하애경, 하정석, 한경남, 한승철, 한원교, 한지훈, 홍민표, 홍인수, 황재선, 황혜원
- 어르신 어울 한마당 (어버이날 행사)** 강대분, 구민자, 김기학, 김미경, 손일순, 이상희, 장경옥, 장현숙, 정순옥, 지명숙, 진금희
- 우리동네음악회** 강민서, 강영옥, 강주희, 고은경, 곽영남, 권지우, 김건희, 김경연, 김경진, 김남우, 김다예, 김동건, 김미화, 김지윤, 김혜진, 김희승, 나혜린, 민수홍, 민준희, 박도영, 배민준, 백성민, 손재민, 신민지, 신우진, 양동하, 양성아, 양유나, 유현기, 이수동, 이슬기, 이일찬, 이정우, 이홍섭, 임한비, 임한솔, 강하영, 전성삼, 전현태, 정다운, 정린, 정소희, 정영우, 조민형, 주영운, 지은미, 차금순, 최은혁, 한정수, 한채연, 한혜숙, 허예은

### 2017년 2분기 후원금/품 수입 및 지출 내역

#### » 후원품 수입 및 지출내역



#### » 후원금 수입 (단위 : 원)

구분	금액
지정후원금	15,350,000
지정사업후원금	23,450,286
비지정후원금	29,002,800
합계	67,803,086

#### » 후원금 지출 (단위 : 원)

지출항목	금액
장학사업	11,400,000
결연후원사업	3,990,000
사례관리사업	1,276,400
서비스제공사업	18,763,348
지역사회조직사업	17,450,110
합계	52,879,858

### » 후원자

#### 결연후원금

- 개인 후원자** 권순찬, 김소연, 김영례, 김윤석, 김택균, 남미현, 박찬익, 신동준, 신익현, 심용진, 오경옥, 유경애, 유병규, 유재훈, 이선이, 이영란, 임선숙, 정태연, 조재형, 진옥자, 최진주, 하석원, 하재덕, 한승진
- 단체 후원자** 공항리무진 달구지회, 삼성SDS, 어린이재단, KBS강태원복지재단, KDB나눔재단

#### 일반후원금

- 개인 후원자** 강은수, 구미옥, 구은정, 국준호, 김강원, 김동현, 김명선, 김미경, 김민경, 김복순, 김선주, 김성미, 김성훈, 김숙희, 김연진, 김영기, 김영선, 김영희, 김원석, 김경옥, 김중국, 김중예, 김주희, 김지민, 김혜지, 남궁명, 남경교, 노성민, 도재연, 문근경, 문지연, 박경원, 박남진, 박상현, 박석우, 박솔기, 박시인, 박경애, 박종찬, 박혜경, 박희순(대일기업), 백낙일, 변새봄, 변지영, 보소미, 서예지, 석지은, 선경호, 송상욱, 송영자, 신유식, 신종훈, 심혜수, 양선영, 양순홍, 양종철, 양진성, 오영지, 유미래, 유병규, 유지연, 윤민주, 윤상문, 윤소영, 윤소원, 윤영은, 이계남, 이동준, 이미진, 이미혜, 이민정, 이선영, 이수진, 이은파, 이인희, 이재우, 이주현, 이충효, 이현진, 이희성, 인한솔, 임지혜, 임하은, 장화숙, 전수진, 전주람, 전해천, 정궁희, 정다희, 정명식, 정문수, 정예원, 정윤솔, 정지영, 정효숙, 조솔기, 최대현, 최민정, 최웅, 최유경, 최춘식, 하경민, 한승이, 한수지, 홍범식, 홍윤순, 황성은, 황순덕, 황예진
- 단체 후원자** 가아인터넷,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립 봉제산어르신센터, 강서구직업재활센터,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뇌성마비복지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곰달래어르신센터, 교남소망의집, 구정평가단, 금강프라자, 기쁜우리복지관, 네이버해피민, 늘푸른나무복지센터,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미래푸드(미래네야채가게), 미생(주민모임),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방화3동 새마을협의회, 방화3동 재향군인회, 방화3동 적십자, 방화3동 청소년지도위원회, 방화5단지 동대표협의회, 방화차량사업소, 손뜨개모임(주민모임), 신도예스큐, 아이티컴(김용성), 연지노인복지센터, 지은보육원, 큰공교육, 하나두리이음(주민모임), 한나유치원, 호선실버센터, ㈜종아요, ㈜코리아넷운, H2빌, KDB멘토링, Metlife

#### 후원품

- 개인 후원자** 김경희, 김영랑, 문정훈(애플), 이부민, 정귀진, 최대현, 함희경, 익명
- 단체 후원자** 강서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개화사, 그릇이야기, 대창문구유통, 대한전기, 동아문구유통, 들내음,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러코(LLUKO), 마곡중학교 학부모회, 방화중학교 봉사동아리, 보습이 서포터즈,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선경, 신세대플라워, 아시아나항공 봉사단, 아이문화사, 아이클럽협, 어린이재단, 예코네트웍스, 열림일터, 영신교회, 인광, 장미상회, 조양유통, 종려나무재가복지센터, 지구북, 책의향기, 캐릭터모아, 코코수, 큰나무교회, 팀웍코리아, 파리크라상(목동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화인리빙플러스, OHUI 서서울점

- 디딤돌 후원업체** 마산아구찜, 방화떡방앗간, 임가네떡집, 토마토안경, 파리바게트(화곡역점)

‘니것을 뽐내고 내것을 뽐내는’

# 니뽐내뽐

재능있는 우리동네 지역주민을 소개합니다.

꿈지원센터 장학생 권미르 군은 어릴 적부터 미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덧 고3이 되어 시각 디자이너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권미르 학생이 소개하는 작품을 감상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권미르입니다. 미술 입시를 준비하며, 제가 완성한 작품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폴 포그바 :** 제가 해외 축구를 관심있게 보는 편인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이자, 프랑스 국가대표 폴 포그바를 면분활을 이용해서 표현해봤어요. 개성이 강한 선수라 처음에 표현할 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작품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집게 :**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서류나 종이를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집게를 소묘로 묘사한 그림입니다.

**파리 :** 극사실주의 작품. 파리의 모습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표현한 작품입니다. 미술 배우면서 처음으로 도전한 극사실주의 작품인데 사진을 보며, 어떻게 질감을 나타낼까 고민을 많이 했던 작품입니다.



니뽐내뽐은 재능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작품과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복지관에 전화(☎02-2666-6181~3) 또는 메일(banghwa@gmail.com)로 신청해주세요.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문화가 필요해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에 가장 큰 첫걸음은 경청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서로에 대한 배려이자 존중입니다.

- 똑똑 문화플래너 참여 청소년들이 건네는 실천 한 마디 -



Kiturami 복지재단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23길 25 (방화동, 방화6단지아파트)  
Tel. 02-2666-6181~3 Fax. 02-2666-6184 www.banghwa6.or.kr

